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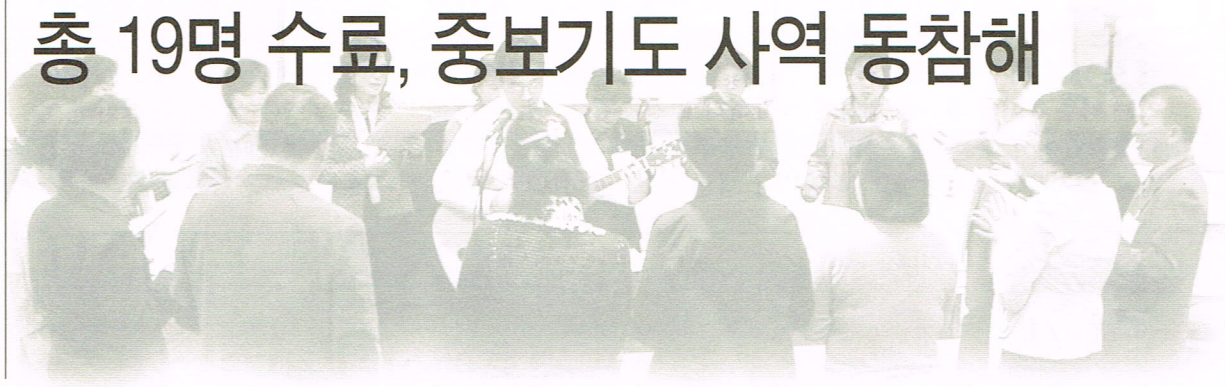
통권 제 125호_발행일 : 2005년 4월 24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중보기도사역 세미나 은혜중에 마쳐

총 19명 수료, 중보기도 사역 동참해



제5기 중보기도사역 세미나가 지난 목요일(14일, 오후 7시~9시30분)과 토요일(16일, 오전 9시~6시)에 5층 찬양 연습실에서 있었다.

토요일 저녁 첫날 오후 7시 5층 찬양 연습실은 찬양의 열기로 가득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중보기도사역세미나에 참여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네 개의 소그룹을 만든 후 중보기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었다. 둘째날 토요일 오전 9시 중보기도사역자가 되고자 다시 모였다. 담당교역자인 정영환목사가 중보기도사역,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영적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등의 주제로 강의했다.

중보기도 사역팀은 5개의 기도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팀의 팀장과 팀원들이 참석하여 사역내용을 소개하고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순서도 있었다. 중보기도사역세미나에 참석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다.

이번 중보기도사역 세미나를 통해 총 19명이 수료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성도들은 주님의교회 중보기도사역에 함께 참여하자고 서로 격려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다양한 분야의 긍휼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난 4월 20일 수요일 긍휼위원회 모든 사역팀장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팀별로 구체적인 사역방향이 설정되었고, 과거보다 좀 더 명확한 비전을 그려나갔다. (4면에서 계속)

5월15일 제3회무지개축제, 전체 4부로 계획되어

제3회 무지개축제가 5월15일 열린다. 당회는 무지개축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최상용 장로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난 3월27일 첫모임을 가지면서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시편133편 1-3절 말씀을 따라 "주님의 가족" 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일예배는 1부예배와 연합예배로 두번 드린다. 1부예배는 7시30분에 종전대로 드리고, 연합예배는 평상시 2부 예배 시작 시간인 9시30분에 함께 드리며, 3부예배와 청년예배,영어예배는 이 날은 따로 드리지 않고 연합예배로 함께 드리게 된다. 연합예배 시간에 초등학생까지는 교회학교 자체 예배를 드리며, 중학생 이상은 연합예배를 함께 드린다.

연합예배가 끝나는 10시30분부터 무지개축제 2부 시간이 시작된다. 2부는 먹거리마당,놀이마당,축제마당과 함께 구역별 식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먹거리마당에는 15종류의 먹거리시장이 열리는데, 500-2000원 상당이면 구입할 수 있다. 놀이 및 축제마당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놀이동산 및 추억의 코너가 마련될 것이다.

3부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운동장에서 진행되는데, 백색의 한마음팀과 적색의 한가족팀으로 나뉘어 전교인 운동회를 벌인다. 한마음팀에는 1,5,6교구가족, 중등부1/2, 고등부1/2, 청년부1/2 교우로 구성된다. 한가족팀은 2,3,4,7교구, 중등부1/2, 고등부1/2, 청년부1/2 교우로 구성된다.

이날 사회는 이재욱 전도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4부 한마음의 장은 3시30분에 다시 대예배실로 들어와 우리교회의 숨은 재능들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아울러 감동의 장이 될 것이다. 무지개축제 당일에는 교정내로 차량은 들어올 수 없고,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탄천주차장등을 이용해야 한다. 단 장애교우차량은 진입이 가능하다.

평양노회 4월 18-19일 열려

김현령, 박의일 전도사 목사 안수 받아

지난 18-19일 이틀간 평양노회가 대전 대흥교회에서 열렸다. 특별히 이번 노회에는 우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2년간 시무한 김현령, 박의일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노회 총대로 섬기는 여러 장로들과 몇명의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과 교역자들이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 목사안수 받은 두 사람을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 우리교회가 속해있는 평양노회는 지역이 아닌 전국을 포함하는 노회여서 이번 노회를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갖게 되었다.

제3여선교회 월례회 결과 보고

제3여선교회 회원들은 지난 4월 20일 강남금식기도원을 다녀왔다.

10시 집회에 참석하여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장벽을 허물라는 도전을 받았다. 그 세 가지 장벽은 첫째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 셋째 사람과 자연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점심 식사후, 찬양과 김상권 권사의 기도, 서기보고와 회계보고와 함께 제3여선교회 월례회를 가졌다. (4면에서 계속)

6월초 결식아동 돕기 음악회 준비해

이혼이나 미혼모, 부친의 사망, 부친의 행방불명이나 구금상태, 아버지가 없는 모자가정 등의 자녀들이 굶고 있다.

결식아동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주는 점심 급식을 먹지 못하는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대책없이 굶는다고 한다. 서울 등촌4종합사회복지관과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돌보는 결식아동 62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에 21명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 고 대답했다. (4면에서 계속)

일
후
에
0대
첫
작
지
실
를
영
서
부
이
양
변

호사의 강연이 있었다. 강지원변호사는 '다양성의 시대, 꿈과 미래'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너무 같아야 한다는 철학에 익숙해있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청소년에게도 적용시킨다. 다양성의 시대에 청소년들이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하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시기는 자기 적성의 탐색기다. 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이것에 대한 탐색이 큰 방향을 잡아주면서 고등학교시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길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강변호사는 지적했다. 지금 자기의 달란트를 그 시기에 발견하는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달란트를 탐색하고, 올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잘하냐는 물음보다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보자. 그리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사실 30대가 겪는 가장 큰 고통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에게는 한 가지가 아닌 몇 가지의 달란트가 동시에 공존한다. 그것들을 잘 개발하여 자기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논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 두 번째 예배에는 유소년축구클럽부장이고 KBS 축구 해설위원인 이용수 세종대 교수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30대 소그룹 기도모임은 매월 셋째 주를 제외한 매주 목요일 7시30분에 교회 5층 찬양연습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30대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는 연령에 상관없이 같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담당 교역자인 김현령 목사는 당부했다.

특별 목요모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인물

직장사역연구소장 방선기 목사

특별목요모임 4월 21일은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구소)가 말씀을 전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과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서 당대 엘리야나 엘리사의 큰 인물에 비해 주목하지 않은 두 명의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알아보자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오바댜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나아만의 계집종'이다.

우상을 섬기는 아합왕의 궁내대신인 오바댜를 성경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한다. 그런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왕 밑에서 일했을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에 불렀기에 버티고 있었지 않았을까? 오바댜는 하나님께 하듯 왕에게 최선을 다했기에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오랫동안 하신 일은 '목수' 일이었다.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대패질, 톱질, 망치질하면서도 그 일로도 최선을 다해 인정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오바댜는 아합이 시킨 일을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 뜻에 위배될 때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다. 그러나 '배설물로 여기는 것'과 '배설물로 만드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당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해도 궁내대신 오바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또 한 명은 주인 나아만의 계집종이다. 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안타까워말을 전해 기적의 역사를 이룬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여자. '엘리사 앞에만 가면' 이란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 일 수 있어 만일 낫지 않으면 나중에 생명의 위협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에 대한 놀라운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집종의 말을 들은 주모의 태도를 보면 '제 말은 정말 믿을 만하다.' 라고 신뢰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것. 계집종에게는 삶에서 드러나는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있는 자리에서 가장 말단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영향력은 발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중요한 사람이다.

직장사역연구소장 방선기 목사의 '제3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직장인 전도 전략' 세미나가 5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홍광교회(서대문구 홍제1동 332-16)에서 열린다. 회비는 7만원.

결혼예식팀 첫모임 가져

결혼예식팀이 지난 주일 첫 모임을 가졌다. 전체 인원은 16명이다. 결혼예식에 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함께 들은 뒤, 봉사 순서를 매주별로 나누었다. 결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매월 : 1주 - 이은영 집사, 장광희 집사, 현옥희 집사, 전대진 / 김지원 청년

2주 - 김흥숙 집사, 이영자 집사, 하승낙 집사, 이미화 집사

3주 - 윤 숙 집사, 신명희 집사, 이봉순 집사

4주 - 설희정 권사, 오순옥 집사, 양희길 집사

5주 - 결혼예식팀 팀원중 자원 받음

인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원한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문의: 박의일 목사).

호세아, "하나님의 끝없는 짝사랑"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3층 초등부실에서는 홍민기목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끊없는 짝사랑(호세아연구)' 반이 있다. 4월 19일은 두번째 강의였는데 호세아 1:10 ~ 2:13 말씀 연구를 하였다. 성경본문을 공부한 후 현재 우리들의 삶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기목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따르는 것이 은혜라고 힘주어 말했다.

남과 비교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은혜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마쳤다.

유년부 달란트학교

매월 마지막 주일 정기적으로 열려

매월 마지막 주일 11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열리는 달란트학교에서는 요리반, 풍선아트반, 예쁜 글씨반, 연극반, 영어성경반, 수화찬양반, 종이접기반, 놀이반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요리반에서는 주로 불을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요리인 파래 주먹밥, 생크림과자,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 것이며 2층 수련실에서 수업할 것이다. 연극반은 역할극, 단막극 등 다양한 형태의 극을 소예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이다. 예쁜 글씨반은 성경말씀을 배우고, 예쁘게 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영어성경반은 영어노래와 '노아의방주'라는 장신기독교연구원의 플래시영상자료를 사용하여 공부할 것이다. 놀이반에서는 민속놀이 등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놀이를 배울 것이다.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자기의 달란트가 발견되고, 감수성을 바르게 키워주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원접수는 유년부실 입구의 신청판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각 반의 인원은 10~12명이 될 것이다.

청소년세례식

청소년 큰 천국 잔치

37명 청소년 세례, 입교식 가져

지난 4월 10일 고등부 예배실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큰 축제가 벌어졌다. 한 달 여 만에 드리는 중고등부 연합예배에서 중고등부 학생 37명이 입교·세례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입교·세례식을 갖게 된 학생들은 3주전부터 입교·세례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입교와 세례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음과 아울러 자신의 신앙을 깊이 점검하는 경건의 수련을 쌓았다. 예식 준비과정 후, 몇몇의 학생들은 '아직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식을 나중으로 미루기도 했고, 한 학생은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도 '신앙을 고백하지만,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교를 미뤘을 정도로 이번 식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는 진지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등부 학생 19명(세례 4, 입교 15), 고등부 학생 18명(세례 9, 입교 9)이 이번에 입교하거나 세례를 받았다.

교육부 담당 홍민기 목사의 집례로 이루어진 이번 입교·세례식은 기쁨과 눈물이 함께 했던 감동의 잔치였다.

입교·세례식은 학생들의 간증으로 문을 열었다. 학생들의 간증 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갈등들,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극적인 순간들을 고백했다. 그중에는 자신이 이단에 빠졌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한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의 진지하고도 솔직한 간증에 예배 참석자들은 힘찬 격려의 박수로 화답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이 거행되고 입교·세례를 하게 된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집례 하던 홍민기 목사가 '그만 좀 울어라'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바라보는 모두의 마음은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다.

예식이 끝나고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 되어 입교·세례자들을 축하해 주었다. 중등부, 고등부 워쉽팀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고 미리 준비한 꽃다발이 입교·세례자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부모, 교사들이 달려 나가 안아주며, 찬양을 부르며 그들을 축복했다. 뜨거운 축복의 여운은 예배가 끝나서도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다.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37명의 청소년들,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기를, 성숙한 주님의 자녀 되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입교·세례자 명단

(중등부)

세례 - 박지현, 류남, 이민정, 황인석

입교 - 정성혜, 문혜진, 김성경, 박소진, 최보규, 김민수, 김소연, 심우성, 김예은, 김예진, 유동빈, 주현준, 강신철, 정은수, 정현철

(고등부)

세례 - 김명이, 박은혜, 이지혜, 장은수, 김도연, 공유진, 나은영, 김미림, 박호연

입교 - 황혜슬, 정겨울, 이예진, 이현주, 이하민, 고한호, 임희진, 황윤수, 이은해

어와나 클럽

어와나 게임즈 교육받고 출전 계획하고 있어

어와나 클럽은 정확한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티 1반은 3시에 불티 2반은 4시에 클럽이 시작하여 40분 동안은 기입장식과 게임 그 후에 40분은 핸드북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40분 간은 교제와 시상식 시간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클럽의 모임이 정확하게 오후 3시와 4시에 시작되지만 일부 단원들은 3분에서 10분이 넘는 시간에 허겁지겁 뛰어와서는 일찍 온 단원들에게 지장을 주는 모습이 있어 안타깝다. 단원들에게 질서와 시간 개념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지각하는 부분의 모습이 없어야겠다. 이 부분에서 부모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주 16일에는 어와나 한국본부 주최로 불티단과 티엔티의 어와나 게임즈에 대한 교육이 저녁 7시부터 3층 밀알실에서 진행 되었다. 전국에서 어와나 클럽이 운영되는 약 15개소의 교회들의 게임 디렉터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다.

어와나 게임즈란, 우리나라에서 어와나 클럽이 운영되는 교회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게임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일종의 경기이다. 2005년 하반기에 주님의 교회 어와나클럽도 출전을 계획하고 있다. 어와나 클럽은 초등학교 넷째 주 토요휴무에 맞추어서 4번째 토요일에는 쉬고 있다.

중등부 출석인원 200명 넘어 축하 피자 파티 열어

지난 주일(4월17일), 중등부에서는 200명 맞이 축하 피자파티가 있었다. 중등부인원이 200명을 넘자 부장인 박대길집사가 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깜짝 피자파티를 열어주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중등부예배가 끝난 후 공과공부시간에 각각 모인 학생들과 교사들이 커다란 피자를 먹으며 기쁨의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면에 이어서)

제3여선교회 월례회 결과 보고

결의사항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매 셋째 주일마다 주방봉사를 하고, 교회 밖에서는 구제와 장애인을 돕기로 했다. 매월 넷째 금요일 1시에 교회에서 4-5명씩 조를 짜 마천 사회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 결식 아동 도시락 보내기를 김선례 권사와 함께 하기로 하며, 마천동 초등학교 결식아동 1명에게 매월 급식비를 보내고, 매월 첫째 금요일에는 서울의료원에서 병원 봉사를 이승숙 권사와 함께 하기로 했다.

다음 모임은 5월 18일(수) 교회에서 10시에 모여 청계산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다. 교회에 소속된 제3여선교회 회원들이 더욱더 많이 참석하여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길 원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1면에 이어서)

6월초 결식아동 돕기 음악회 준비해

나머지는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먹기도 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식권을 이용해 동사무소 등이 지정한 식당이나 도시락 배달로 식사를 때운다고 답했다. 결식아동은 느는데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고, 어린이 10%가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 추산하는 결식아동은 전국 25만 명. 굿네이버스 양진옥 실장은 "가정해체와 경제 위기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결식아동들을 실제적으로 돕고자 주님의교회에서도 결식아동 돕기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관은 제1남선교회이며 주최는 긍휼위원회와 음악위원회가 공동으로 한다. 각 남녀선교회와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함께 후원하게 되며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리게 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

이제는 영적 전쟁을 싸울 의지가 생겨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진 여호수아서 강해반은 지난 3월 31일 첫 모임 이래 지난주 모임까지 네 번의 모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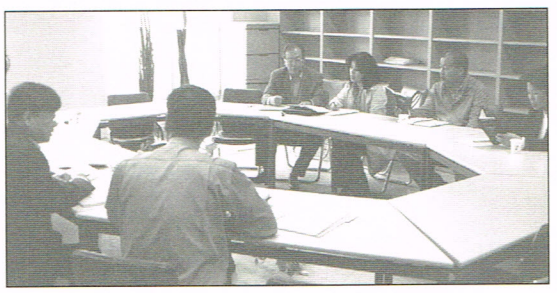
인도는 박의일 목사가 담당하며,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는 5층 찬양연습실이다. 현재 등록인원은 47명이며, 영적전쟁이라는 주제에 관해 참석한 성도들의 열의가 매우 뜨거웠다.

강의 시작 30분전인 10시부터 이종은 권사의 크로마하프 반주에 의한 찬양인도와 기도로 강의를 준비한다. 특별히 지난주 강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주제중 '그리스도인도 귀신들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있어 다소 뜨거운 주제를 다루었다.

참석한 성도들도 관심있는 이 주제에 관해 1시간 반 동안 매우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강의 이후 참석했던 한 성도는 '이제는 영적 전쟁을 싸울 의지가 생겨요'라고 밝은 표정으로 고백하기도 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연일 계속되는 황사에도 불구하고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은 막지 못했다. 지금 진행중인 모든 양육 클래스는 4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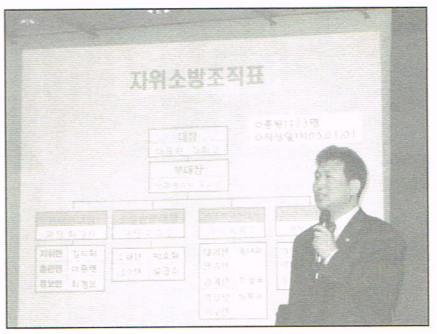
(1면에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긍휼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구제부에서는 어린이심장병환자 수술을 준비 중에 있고, 119사역팀은 대사회재난을 대비해 구체적인 물자지원을 위한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교회 내의 화재발생 등을 고려해 방지대책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소년소녀가장 사역팀은 재정지원을 원하는 팀원과 구체적인 사역현장에서 일하는 사역팀으로 편성하여 사역현장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직접적인 사랑의 전달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에 함께 방문할 사역자들을 더 많이 찾고 있는 중이다. 결식아동사역팀은 학교별로 실태조사가 끝났고, 구체적인 지원방침 및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들을 마련해가고 있다. 기타 도시락 봉사 및 따듯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담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했다. 노숙자 사역 및 일용근로자 사역팀은 들샘 공동체와 함께 일용근로자가 노숙자가 되는 길을 차단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특히 텐트생활로 노숙자직전의 상황에 있는 몇 가정을 포함하여 그들을 도울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탈북청소년 사역팀은 여명학교를 지속적으로 돕고, 이 학교에 식사제공 및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했다. 기타 사역팀들도 발전적인 사역을 위해 연구중에 있다.

이 날 회의를 통해 발견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며 협력하고, 분업화해서 사역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지원뿐 아니라 함께 몸으로 뛰며 구체적인 현장에서 사역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를 했고,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재난시 응급처치하는 법 강의 장면

유소년 축구클럽

야외잔디구장 적응훈련 오늘 떠나

유소년 축구클럽은 야외잔디구장 적응훈련을 위해 오늘(24일) 오후 1시 교회운동장에서 구리 서울 FC 전용구장으로 출발한다. 저녁 6시경에 교회로 돌아올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미사리에 있는 축구전용 야외잔디구장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박주영 선수가 직접 뛰고 있는 프로팀 서울 FC의 전용 야외잔디구장에서 우리교회 유소년 축구클럽이 적응훈련을 갖게 되었다.

날로 성장하는 유소년 축구클럽에 대해 많은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부모가 받는 유아세례교육

유아세례교육이 4월 10일 오후 1시 45분 3층 초등부실에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5월 4일 수요일 유아세례식까지 정희성목사의 지도아래 매주 교육된다. 찬양으로 시작된 유아세례교육은 유아가 받는 세례이지만, 유아부모의 교육이며 부모에게 매주 정해진 과제를 해나가야 한다. 지난 시간에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크리스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에도 같은 장소인 초등부실에서 제3주 강의가 진행된다.

제2회 교회연합 캄보디아 전문인 선교대회 열려

우리교회 해외 선교팀에서는 캄보디아 선교에 선택적 집중을 하고 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모임 연합 주최로 김창근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무학교회 후원으로 4월 30일(토) 오후 2시에 무학교회에서 캄보디아 전문인 선교대회가 열리게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의료업계에 종사하면서 전문인으로 해외 특별히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